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7. 11. 16(목)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상황실장 김일평, 상황반장 이성해, 반원 이정기 ·☎ (044) 201-4170, 4164, 3573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토목·건축 학술단체 공동조사단 구성(5보)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교통부장관)는 11월 16일 건설분야 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회장: 명지대 박영석 교수)와 대한건축학회(회장: 경일대 하기주 교수)가 공동으로 구성된 조사단과 함께 피해분석 및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포항지역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 중인 긴급 안전점검에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보다 신뢰성 높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11월 17일부터 대한토목학회 소속의 울산대 김익현 교수 등 5명, 대한건축학회 소속의 부산대 오상훈 교수 등 5명, 총 10명의 지진전문가*가 피해현장에서 점검조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며,

<참여 지진 전문가>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대한 토목 학회	김익현	울산대학교 교수	대한 건축 학회	오상훈	부산대학교 교수
	하동호	건국대학교 교수		이승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송종걸	강원대학교 교수		이강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동수	KAIST 교수		최경규	송실대학교 교수
	박두희	한양대학교 교수		김승직	계명대학교 교수

○ 앞으로, 해당 전문가들은 긴급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지진 정책 수립과정까지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민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재능 기부사례로서 정부로서는 매우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 “이번 일로 인해 신뢰성 높은 점검결과와 실효성 높은 보수·보강 방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번 사례가 민관 합동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례로서 선진적인 재난대응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 044-201-35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